

《文心雕龍·辨騷》(1)*

홍윤기**

〈解題〉

《文心雕龍》〈辨騷〉편의 편명의 뜻을 오늘날의 말로 풀이해 보면, “〈離騷〉에 대한 분석” 정도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離騷〉는 실제로 屈原의 《楚辭》를 광범위하게 가리키는 것이다.

이 〈辨騷〉편은 《文心雕龍》의 〈原道〉、〈徵聖〉、〈宗經〉、〈正緯〉편 뒤의 제 5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편장이다. 〈序志〉편에서는, 《文心雕龍》을 지을 때 〈離騷〉로부터 문학의 變革의 정신을 배웠다고 언급하면서, 〈辨騷〉편을 위의 4편과 더불어 “文之樞紐” 즉 “문학(혹은 《文心雕龍》)의 지도리”라고 일컫고 있으니, 〈辨騷〉편은 《文心雕龍》의 50편 가운데 핵심이 되는 편장이라고 할 수 있다.

劉勰은 屈原의 《辨騷》가 유가경전의 내용과 형식을 이어받고 있으면서도 이를 새롭게 변혁시켜 새로운 문학양식을 창조해냈다고 생각하였다.

〈辨騷〉편은 내용상 다음과 같이 4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째 단락은, 《辨騷》가 갖는 위대한 문학성이 《詩經》으로부터 나왔다는 점을 총괄하였다.

둘째 단락은, 역대 비평가들의 《辨騷》에 대한 평가의 주요 갈래와 내용을 언급하였다. 劉勰은 역대비평가들의 주장을 두 갈래로 나누었다. 즉 《辨騷》가 유가경전의 정신과 내용과 체제를 이어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劉安·王逸·宣帝와 揚雄의 갈래와 《辨騷》가 유가경전의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班固의 갈래가 그것이다.

셋째 단락은, 이들 두 갈래의 주장을 비판하고 劉勰 자신의 주장을 총괄하였다. 첫째 《辨騷》는 악독한 정치지도자를 비판하고 인민을 위하는 정치지도자를 칭찬하는 내용

* 본고는 《文心雕龍》주석서 가운데 가장 풍부한 주석을 담고 있는 詹鍈《文心雕龍義證》(上海古籍出版社, 上海, 1989)의 〈辨騷〉편을 번역한 것이다.

** 極東大 中國語學科 教授

에 있어서, 그리고 이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詩經》과 《尙書》의 내용과 형식을 본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辨騷》의 환상적인 내용은 비현실적이라서 유가경전의 내용과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辨騷》는 《詩經》에는 미치지 못하기는 하지만, 辭賦에 있어서는 매우 우수한 작품이라고 총평하였다.

넷째 단락은 《辨騷》의 우수성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첫째, 표현이 아름답고 화려하다는 점에서 우수하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고국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굴원의 우국충정의 마음이 절실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우수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리하여 《辨騷》는 후대 사인들에게 다양한 방면에서 깊은 영향을 끼쳤다고 서술하였다.

결국, 《辨騷》편은 문학의 내용과 형식을 계승하고 변혁하는 데 있어서 《辨騷》가 그 본보기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元刻本「辨」作「辯」.

원각본에는 「辨(변:분별하다/구분하다/분석하다)」자가 「辯(변:말 잘하다)」자로 되어있다.

《校證》:「汪本、余本、張之象本、兩京本、何允中本、日本活字本、鍾本、梁本、王讀本、《四庫》本、崇文本『辨』作『辯』。」按唐寫本作「辨」,今從之。」

《校證》:「왕본·사본·장지상본·양경본·하윤중본·일본활자본·종본·양본·왕모본·《사고》본·송문본에는 『辨』자가 『辯』자로 되어있다. 당사본에는 「辨」자로 되어있는데, 이에 당사본을 따른다。」

橋川時雄:「《楚辭》及各本作辨, 唐寫本作辨, 《楚辭》夫蓉館汲古閣本亦作辨, 汪、張、余、胡

-133-

及《四庫》本作辯, 《說文》部: 辯, 治也, 段注云:「俗多與辨不別, 時按辯, 辨二字同音義近, 非關假借, 通用已久。」

橋川時雄:「《초사》 및 각본에는 '辨'으로 되어있고, 당사본에는 '辯'으로 되어있다. 《초사》부용관·급고각본에도 辨으로 되어 있으며, 왕·장·사·호 및 《사고》본에는 辯으로 되어 있다. 《설문》猝부: 辯(말을 분별 있게 잘하다)은 治(잘 다스리다/잘 운용하다)이다. 단옥재 주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통속적으로 많

은 사람들이 (辯자를) 辨자와 구분하지 않는다.” 橋川時雄 본인이 생각건대, 辯자와 辨자 두 글자는 음이 같고 뜻이 가까워 서로 빌려 쓰는 데 문제가 없어서 통하여 쓴 지가 이미 오래 되었다.」

홍윤기 주: 그래도 엄밀히 따지자면, 「辨」자가 「辯」자보다 낫다. 《辨騷》를 현대적으로 번역한다면, ‘《離騷》편에 대한 분석의 의미가 된다.

徐師曾《文體明辨》于《楚辭》類序云:「按《楚辭》者,《詩》之變也.……屈平後出,本《詩》義以爲騷,蓋兼六義而『賦』之義居多.厥後宋玉繼作,兼號《楚辭》.自是辭賦之家,悉祖此體.故宋宋祁有云:『《離騷》爲辭賦之祖,後人爲之,如至方不能加矩.至圓不能過規.』信哉斯言也.」

서사증의《文體明辨》의 《초사》류 序에서 이르기를:「생각건대 《초사》는《시경》이 변화된 것이다.…… 굴원이 이후에 나타나서,《시경》의 뜻을 바탕으로 삼아 騷를 지었는데, (《시경》의) 六義를 겸비하였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賦』의 뜻이 많았다. 그 뒤에 宋玉이 이어 지었으니 (이들의 작품을) 더불어 (일컬어) 《楚辭》라고 부른다. 이때부터 사부의 작가는 모두 이 楚辭體를 祖宗으로 삼기였다. 宋나라의 宋祁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소》는 辭賦의 祖宗이 되어, 후세 사람들이 이를 (홍내내어) 지었는데, 마치 아무리 네모가 네모를 넘더라도 네모 자보다 나올 수 없고, 아무리 동그라미가 동그랑더라도 동그라미 자를 넘어설 수 없는 이치와 같이《이소》보다 낡은 작품은 지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맞는 말이다. (홍윤기 번역 보충: 至方/至圓: 지극한 네모/지극한 동그라미. 矩(구): 네모를 그리는 자. 規(규): 동그라미를 그리는 콤파스)

《四庫全書總目提要》集部楚辭類小序:「哀屈宋諸賦,定名《楚辭》,自劉向始也.後人或謂之騷,故劉勰品論《楚辭》,以『辨騷』標目.考史遷稱『屈原放逐,乃著《離騷》』,蓋舉其最著一篇.《九歌》以下,均襲騷名,則非事實矣.」

《四庫全書總目提要》集部 楚辭類 小序에:「굴원과 송옥의 여러 부를 모아서 《초사》라고 이름 붙인 것은 유향부터 시작된 것이다. 후세사람들이 때로 이것을 騷라고 하였기에, 유향은 《초사》를 비평하는데, 『辨騷 이소에 대한 분석』이라는 표제를 단 것이다.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굴원이 쫓겨나서 《이소》를 지었다』라는 말을 살펴보면, 이 말은 가장 두드러진 (《離騷》) 한 편을 들어 전체

책이름을 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엄밀하게 따지자면)《구가》 아래의 편들까지도 모두 '騷'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사실에 부합한 것이 아니다.」(홍윤기 번역 보충: 稟(부): 모오다. 史遷: 사마천의 《사기》)

紀評:「《離騷》乃《楚辭》之一篇. 統名《楚辭》爲《騷》, 相沿之誤也.」又:「辭賦之源出于《騷》, 浮艷之根, 亦濫觴于《騷》, 『辨』字極爲分明.」

紀均의 評:「《이소》는《초사》의 한 편으로, 《초사》를 《소》라고 뭉뚱그려 부르는 법은 오랫동안 계속되어진 잘못이다.」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사부의 원류는《소》에서 나왔으며, 浮艷의 뿌리 또한《소》에서 시작되었으니, 『辨』자의 의미는 너무나도 분명하다.」

《補注》:「詳案周中孚《鄭堂札記》云:《史記·太史公自序》:屈原放逐著《離騷》. 又云:作辭以諷諫, 連類以爭義, 《離騷》有之. 《漢書·遷傳》:屈原放逐, 乃賦《離騷》. 皆舉首篇以統其全書, 據此, 彦和亦統全書而言, 紀氏殆未審也.」

《補注》:「李詳(홍윤기 번역보충) -《文心雕龍補注》의 저자 李詳(1859-1931), 字는 審言이며, 中年에는 또 字가 愧生이었고, 晩年の 호는 齷叟 이빠진 늙은이이다. 江蘇省 揚州 興化縣 사람이다. 청나라 말기 민국 초기의 지명한 학자이며 문학가로서, 양주학파 후기의 대표적 인물이다. 그에 대해서는 《文心雕龍學綜覽》 298쪽을 참조할 것)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주중부의《정당찰기》에 이르기를:《사기·태사공자서》에 “굴원이 쫓겨나서 《이소》를 지었다” 하였고, 또한 “문장을 지어 풍간하고 빗대어서 뜻을 다투는 방법은《이소》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서·사마천전》에도 이르기를: “굴원이 쫓겨나서 《이소》를 지었다”라고 하였는데, 이런 말들은 《초사》의 첫머리 편인 《이소》를 들어서 《초사》 전체를 통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유희(홍윤기 번역 보충: 彦和는 유희의 字. 劉鏗은 또 舍人이라고도 불리는데, 劉鏗이 한 때 昭明太子 蕭統의 東宮通事舍人이라는 벼슬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東宮通事舍人의 직책은 태자를 위하여 奏(일종의 건의문)를 올리고 법률의 초안을 작성하는 등, 문서를 관리하는 비서격) 또한 (《이소》로써) 전체 책을 일컫는 것인데, 紀均은 거의 이를 살피지 못하였다.」

《札記》:「自彦和論文, 別騷于賦, 蓋欲以尊屈子, 使《離騷》上繼《詩經》, 非

謂騷賦有二。觀《詮賦》篇云：『靈均唱騷，始廣聲貌。』是仍以《離騷》爲賦矣。《隋書·經籍志》別《楚辭》于總集，意蓋亦同舍人。」

《札記》：「유협이 문장을 논평하는데 있어서, 賦에서 離騷를 구별시킴으로써 굴원을 존송코자 하여, 위로는 《이소》가 《시경》을 잇고 있다고 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騷와 賦가 별개의 다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전부》편의 『굴원이 이소를 노래함으로써, 비로소 소리의 형식이 넓어졌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여전히《이소》를 賦라고 여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수서·경적지》에는 《초사》를 총집에서 따로 놓고 있으니, 의도가 또한 劉勰과 같다.」

-134-

范注：「《漢書·藝文志》：《屈原賦》二十五篇。二十五篇中，《離騷》爲最重。後人因以《騷》名其全書。(《文史通義·經解下》云：『史遷以下，至取《騷》以名其全書。』按《史公自序》：『屈原放逐著《離騷》。』《屈原傳》亦未嘗單以《騷》爲名。)《時序》篇謂：『爰自漢室，迄于成哀，雖世漸百齡，辭人九變，而大抵所歸，祖述《楚辭》，靈均餘響，于是乎在。』以其影響甚大，故彥和于《詮賦》篇外，別論之(《文選》亦于賦外別標騷目，其實騷非文體之名)。」

범문란 주：「《한서·예문지》：《굴원부》25편이 있다. 25편 가운데《이소》가 가장 귀중하여, 후세사람들은 이 《離騷》로써 그 전체 책 이름으로 불렀다. (《문사통의·경해하》에 이르기를：『사마천 이후，《이소》로써 전체 책이름으로 불렀다.』생각건대, 《사기·태사공자서》에：『굴원이 쫓겨나서《이소》를 지었다.』다고 하였으며, 《사기·굴원전》 또한 일찍이 단지 《騷》한 글자로 이름을 삼은 적은 없다.) 《시서》편에서 『한 무제가 사부를 중시한 때부터, 성제와 애제에 이르기까지, 세월은 백여년이 넘어 사부가들의 창작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대체적인 추세로 보자면, 여전히 《초사》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었으니, 굴원의 영향은 여기에까지 미쳤던 것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 영향은 무척 컸기 때문에, 유협은《전부》편 외에서도 별도로 이를 언급하였던 것이다.(《문선》또한 賦 이외에 따로 騷의 목록을 달고 있으나, 사실 騷는 문체의 이름은 아니다.)

許文雨《文論講疏》：「按劉氏此篇實總《楚辭》而言(標題曰《騷》), 特舉其

最著之一篇以代表全體)。意謂《楚辭》足以嗣續《風》《雅》也。此種《楚辭》，班固《藝文志》竟標以賦稱，蓋辭賦本係同體耳。劉勰別有《詮賦》篇，舉班固所稱古詩之流以勘賦原，以爲『受命於詩人而拓宇於《楚辭》』。蓋劉氏諱於名號，必以荀況《禮》、《智》，宋玉《風》、《釣》，始敢稱之。亦可謂滯於形迹者已。」

許文雨《文論講疏》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생각건대 유협의 이 편은 실로《초사》를 통틀어 말한 것이다. (표제를 《변소》의)《소》라고 한 것은 가장 두드러지는 한 편인 《이소》편을 전체 《초사》의 대표로 삼아 특별히 든 것이다). 그 의도는《초사》가 《풍》《아》를 대표로 하는 《시경》을 잘 계승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한 것이다. 이 《초사》는, 반고의《예문지》에서는 賦로 표제되어 일컬어지고 있으니, 辭와 賦는 원래 같은 체재일 뿐이기 때문이다. 유협은 따로《전부》편에서, 반고가 《시경》 시의 흐름에서 賦의 원류를 살피는 내용을 들어, 『(賦는)《시경》 시인들에게서 이름을 받아,《초사》로 범위가 확대되었다』라고 생각하였다. 유협이 이름에서 그 유래를 찾는 것은 분명 순자의《예》賦《지》賦, 송옥의 《풍》賦,《조》賦로부터 비로소 감히 일컬은 것이다. 겉모습에 빠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05-01 自《風》《雅》寢聲〔一〕, 莫或抽緒〔二〕, 奇文鬱起〔三〕, 其《離騷》哉〔四〕! 固已軒翥詩人之後〔五〕, 奮飛辭家之前〔六〕. 豈去聖之未遠, 而楚人之多才乎〔七〕!

홍윤기 번역:《風》과 《雅》로 대표되는 《시경》의 노래 소리가 그치면서, 누구도 그 실마리를 뽑아 뒤를 잇는 이가 없더니, 기이한 글이 성대하게 일어났다. 그 것이 바로 《이소》이다. 진실로《시경》詩人の 뒤에서 드높이 치솟아 날았으며, 漢代 賦家의 앞에서 힘차게 펼쳐 날아올랐다. 이것이 어찌 聖人의 시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겠는가, 楚나라 사람들이 원래가 재주가 많았기 때문이지!

〔一〕《校注》:「《文選》班固《兩都賦序》:『昔成康沒而頌聲寢。』《漢書·禮樂志》:『漢典寢而不著。』顏師古注:『寢, 息也。』皇甫謐《三都賦序》:『至於戰國, 王道陵遲, 《風》《雅》寢頓。』

《校注》:「《文選》班固《兩都賦序》:『옛날, 成王·康王이 돌아가시자 이들에 대한 찬송의 노래 소리는 그치었다.』《漢書·禮樂志》:『한나라 때에는 경전이 그쳐 지어지지 않았다』 顏師古注:『寢(침: 잠자다/쉬다)은 쉬는 것이다』 皇甫謐《三都賦序》:『《風》《雅》寢頓. 전국시기에 이르러 왕도가 쇠퇴하면서 《풍》《아》를 대표로 하는 《시경》의 노래소리가 그치었다.』

〔二〕《說文》:「抽, 引也。」揚雄《太玄經·玄瑩》:「群倫抽緒。」注:「抽, 收也。」抽緒謂收引餘緒, 卽曹批「直接其緒」之義. 《注訂》:「莫或抽緒者, 嘆繼起無人也。」《文論講疏》:「《論語·微子》:

-135-

『太師摯適齊, 亞飯干適楚, 三飯綽適蔡, 四飯缺適秦, 鼓方叔入于河, 播鼗武入于漢, 少師陽, 擊磬襄入于海。』蓋當時官失其業而分散, 雅樂由是淪亡而不可復。」

《說文》:「抽는 끌어당기는 것이다。」揚雄《太玄經·玄瑩》:「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실마리를 잡아당긴다。」注에:「抽는 거두어들이는 것이다.」실마리를 당긴다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는 실마리를 잡아당기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조학전은 「직접 그 실마리를 받아들이는」 뜻이라고批했다. 《注訂》:「아무도 실마리를 잡아당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 뒤를 잇는 사람이 없음을 탄식하는 것이다.」《文論講疏》:「《論語·微子》에, 『태사 지는 제나라로 가고, 아반 간은 초나라로 가고, 삼반 료는 채나라로 가고, 사반 결은 진나라로 가고, 복을 치는 방숙은 河內로 들어가고, 작은 멍멍이 복을 흔드는 무는 漢中으로 들어가고, 소사 양과 경쇠를 치는 양은 바다로 들어갔다.』라고 하였다. 이 것은 당시 관리들이 그 직업을 잃고 흩어져서, 아악은 이 때문에 쇠망하여 다시는 회복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홍윤기 번역 주 藝(도): 북 양 옆에 구슬을 줄에 달아 북 자루를 앞뒤로 돌리면서 북면을 치게 하는 작은 북)

《文體明辨·序說》《楚辭類》:「《風》《雅》既亡, 乃有楚狂《鳳兮》, 孺子《滄浪》之歌, 發乎情, 止乎禮義, 與詩人六義不甚相遠. 但其辭稍變詩之本體, 而以『兮』字爲讀, 則夫楚聲固已萌蘗于此矣.

《文體明辨·序說》《楚辭類》:「《풍》과 《아》를 대표로 하는 《시경》의

노래가 쇠망하였으나, 초나라 버치왕의 《봉혜》가 있었고, 유자의 《창랑》의 노래가 있었는데, 이들 노래는 감정에서 생겨나서 예의에서 그쳤는데, 《시경》 시인의 六儀와 아주 먼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문사는 시의 본 모습을 조금 변화시켜서 『혜』자를 끼어서 읽으니, 초나라 노래는 진실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홍윤기 번역 주 萌蘗(맹얼-萌(맹-삭) 蘗(얼-그루터기에서 돋는 움): 식물의 싹./사물의 처음을 비유한다.)《孟子·離婁》:「王者之迹息, 而詩亡. 왕도의 자취가 그치더니(《시경》의) 시가 사라졌다.)」

[三] 橋川時雄:「《楚辭》芙蓉館, 汲古閣本『鬱』作『蔚』. 時按蔚之本義, 牡蒿也, 古多借『蔚』爲『茂』字, 蔚, 鬱二字, 亦一聲之轉.

橋川時雄:「《초사》 부용관, 급고각 본에는 『鬱(울-우거지다)』이 『蔚(울-풀이름/성하다)』로 되어 있다. 橋川時雄 본인이 생각컨대, '蔚'의 본래 뜻은 쑥이다. 옛날에는 (쑥을 나타내는) 『蔚』자를 빌어서 (무성함을 나타내는) 『茂』자로 삼아 많이 쓰기도 했다. 그리고 蔚, 鬱 두 자는 또한 발음이 같아서 옮겨 쓰기도 한다.」(홍윤기 번역 주 牡蒿: 풀이름. 쑥의 일종)

[四] 梅注:「《離騷》者, 猶離憂也. 按《史記·屈原傳》:原名平, 楚之同姓也, 爲楚左徒, 王甚任之. 上官大夫, 令尹子蘭讒之, 王怒而疏屈平, 故憂愁幽思而作《離騷》. 後人稱之曰《騷經》. 又作《九歌》《天問》《九章》《遠遊》《卜居》《漁父》諸篇. 王逸《離騷序》:「離, 別也; 騷, 愁也. 言已放逐離別, 中心愁思. 應劭曰:「離, 遭也; 騷, 憂也.」(《史記·屈原列傳》索隱引)

梅注:「《離騷》라고 하는 것은 근심을 벗어나는 것이다. 《사기·굴원전》에 따르면 굴원은 이름이 평으로, 초나라 왕실과 성을 같이한다. 초나라의 좌도가 되었는데, 왕이 심히 그를 신임하였다. 그러나 상관대부·영윤자란이 그를 헐뜯어서 왕이 분노하여 굴원을 멀리하였고 따라서 근심스런 마음에 《이소》를 지었고 후세 사람이 이를 일컬어 《소경》이라고 불렀다. 그는 또한 《구가》《천문》《구장》《원유》《복거》《어부》 등의 여러 편을 지었다.」王逸《離騷序》:「이소의 '이'는 이별하는 것이다. 이소의 '소'는 근심이다. (결국, 이소란 이별하여 근심하다 라는 뜻이다.) 자신이 쫓겨나서 고향과 이별하여 마음이 근심스런 것이다.」應劭가 이르기를:「'이'는 만나는 것이다. '소'는 근심이다. (결국, 이소란 근심

을 만나다 라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史記·屈原列傳》索隱引)

《注訂》:「戴震《屈原賦注》:『離騷, 卽牢愁也.』蓋古語. 揚雄有《畔牢愁》, 離, 牢一聲之轉, 今人猶言牢騷.」

《注訂》:「戴震의 《屈原賦注》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이소는 근심에 갇히는 것이다.(홍윤기 번역 주·牢(되): 우리에게 둘러 쌓여 있는 것.)』 옛 말이다. 揚雄의 작품 가운데 《畔牢愁》가 있는데, '離'자와 '牢'자는 같은 발음이 전화된 것으로, 오늘날의 사람들은 지금도 牢騷라고 말한다.」

(五) 「固已」, 橋川時雄:「各本及唐寫同, 胡本作『固以』, 《楚辭》夫蓉館, 汲古閣本作『故以』,』又:「按《後漢書·班彪傳》下注云:『軒翥, 謂飛翔上下也.』《廣雅·釋詁》一:翥, 舉也. 《釋詁》三:翥, 飛也.」

「固已」에 대하여, 橋川時雄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각 본 및 당사본에는 (「固已」라고 되어 있어) 같고, 호본에는 『固以』로 되어있다. 《楚辭》부용관, 급고 각 본에는 『故以』로 되어있다.」 또:「《後漢書·班彪傳》아래의 주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軒翥는 날아올라 (바람을 타고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다.』《廣雅·釋詁》一에: 翥는 치켜드는 것이다. 《釋詁》三에: 翥는 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136-

斯波六郎:「《楚辭·遠遊》:『鸞鳥軒翥而翔飛.』洪興祖《補注》:『《方言》十:「翥, 舉也. 楚謂之翥.」』《文選》班固《典引》:「三足軒翥於茂樹.」李善注:「軒翥, 飛貌.」詩人, 指三百篇之作者.」

斯波六郎:「《楚辭·遠遊》:『란새가 바람을 타고서 드높이 날아』에 대하여, 洪興祖는 《楚辭補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方言》十:「翥(저)는 치켜드는 것이다. 초나라 방언으로 (나는 것을) 翥라고 한다.』』《文選》에 실려 있는 班固의 《典引》에 「해가 무성한 숲 위로 떠올라.」라는 구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李善은 「軒翥(헌저)는 나는 모양이다.」라고 주를 달았다. 「詩人」이란 시경의 시인을 가리킨다.(홍윤기 번역 주·三足: 신화에 따르면, 세 발 달린 까마귀가 해에 산다고 한다. 따라서 '三足'은 해를 가리킨다. '軒'은 본래 집의 높은 곳인 처마나 추녀를 가리킨다.

여기에서는 그냥 '높은 곳'이란 의미.)

〔六〕《日知錄》二十一《詩體代降》條:「《三百篇》之不能不降而《楚辭》,《楚辭》之不能不降而漢魏,勢也。」是騷承于《詩》,賦又承于騷,三者有連綿生長之關係。「奮飛」,振翼而飛。《詩·邶風·柏舟》:「不能奮飛。」毛傳:「不能爲鳥奮翼而飛去。」《注訂》:「辭家指宋玉以下諸家而言。」

《日知錄》二十一의 《詩體代降》條에 「《시경》은 《초사》로 내려갈 수밖에 없고, 《초사》는 한위시기의 사부로 내려갈 수밖에 없으니 이것은 추세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이소가 《시경》을 계승하였고, 한부는 또한 이소를 계승하였다는 것으로, 삼자는 서로 낳고 자라게 하는 계승관계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奮飛」는 날개를 펼쳐서 나는 것이다. 《시·패풍·백주》:「펼쳐 날수 없어라」의 구에 대한 毛씨는 「새가 되어 날개를 펼쳐 날아 갈 수 없음이다。」라고 하였다.《注訂》:「辭家は 宋玉 이하의 여러 작가를 말한다。」

〔七〕《孟子·盡心》下:「去聖人之世,若此其未遠也。」《序志》:「去聖久遠,文體解散。辭人愛奇,言貴浮詭。」橋川時雄:「《左傳》襄公二十年云:惟楚有才,晉實用之。」

《孟子·盡心》下:「성인의 시대와 떨어진 것이 이와 같이 멀지 아니하며」《序志》:「성인의 시대와 떨어진 것이 오래되어, 문체가 풀어 흩어졌다. 문인들은 기이한 것만을 좋아하여 비현실적이고 거짓된 글을 귀중하다고 말한다。」橋川時雄:「《左傳》襄公20년에 楚나라에 인재가 있었으나, 晉나라가 실제로 그를 썼다。」

홍윤기 번역 주: 「豈去聖之未遠,而楚人之多才乎!」에 대한 해석은 대략 세 가지로 할 수 있다:

1. 「豈(어찌(~가 아니)겠는가!)」자의 의미가 「乎」자까지 걸리는 것으로 보는 경우: 「聖人の 시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고, 楚나라 사람들이 원래 재주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장점: 《이소》가 《시경》의 시대와 가까워서 이를 계승하였다는 역사적 필연성이 돋보인다. 대부분의 번역자들이 좋아하는 번역이다.

2. 「豈」자의 의미가 앞 구에만 걸리고 「而」자를 역점으로 보는 경우: 「이것이

어찌 聖人의 시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겠는가, 楚나라 사람들이 원래가 재주가 많았기 때문이지! 장점: 《이소》가 《시경》을 계승하고는 있지만 그 이유가 그저 《시경》의 시대와 가까워서였기 때문이 아니라, 屈原의 시대와의 불화 및 창조적 재능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음이 강조되는 번역이다. 본인이 좋아하는 번역이다.

3. 「豈」를 추측을 나타내는 어기사로 볼 경우: '아마도 성인의 시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고, 초나라 사람들이 재주가 많았기 때문이리라!' 장점: 특별히 강조점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매우 무난한 번역이다.

以上爲第一段, 初論騷體之興, 繼軌《風》《雅》.

이상이 제 1단락으로, 이소체가 일어나서 《시경》의 궤적을 잇고 있음을 처음으로 논하고 있다.

05-02 昔漢武愛《騷》，而淮南作傳〔一〕，以爲「《國風》好色而不淫，《小雅》怨誹而不亂〔二〕。若《離騷》者，可謂兼之〔三〕。蟬蛻穢蜀之中〔四〕，浮游塵埃之外，儼然涅而不緇〔五〕，雖與日月爭光可也。」

蛻(태: 허물) 穢(예: 더럽다) 儼(작: 회다) 緇(치: 검은 비단/검게 물들이다)

홍윤기 번역: 옛날 한 무제는 《이소》를 아끼었고, 회남왕 유안은 (무제의 명령에 따라) 《이소》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는 《이소전》을 지었다. 그는 (《이소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국풍》은 이성을 성적으로 좋아하면서도 지나치지 않고, 《소아》는 원망하고 비난하면서도 법도를 잃지 않았다. 그런데 《이소》는 이 두 가지 장점을 두루 갖추었다고 일컬을 만 하다. 더럽고 흐린 세상 속을 허물 벗듯이 빠져나왔고, 먼지와 티끌로 가득 찬 세상의 바깥을 떠다니듯 거닐었다. 그 회고 깨끗함은 물들이려고 해도 물들여지지 않아서, 해와 달에 견줄지라도 그 빛을 다룰 만하다.”

〔一〕 梅注:「淮南王名安, 漢高帝孫, 厲王長之子也. 武帝時, 安入朝獻所作, 《內篇》新出, 上愛祕之, 使爲《離騷傳》, 且受詔, 日食時上。」

梅注:「회남왕은 이름이 劉安으로, 한나라 高帝(홍윤기 번역 주 劉邦)의 손자이며, 厲王 劉長의 아들이다. 武帝 때 劉安이 조정에 들어가 작품을 바쳤는데, 《내

편》(홍윤기 번역 주-《회남자》를 가리킨다)이 새로웠다. 이에 무제는 이를 아끼어 신비스럽게 여기었고, 劉安으로 하여금 《이소전》을 짓도록 하였는데, 해뜰 녘에 조칙을 받아 밥 먹을 때 바치었다.(홍윤기 번역 주- 祕(비): 귀신. 여기에서는 신비스럽게 여기다. 유안과 무제의 관계)

-137-

范注:「《漢書·淮南王傳》:『淮南王安入朝, 獻所作, 《內篇》新出, 上愛祕之, 使爲《離騷傳》, 且受詔, 日食時上.』顏師古注曰:『傳謂解說之, 若《毛詩傳》.』王念孫《讀書雜誌·漢書離騷傳》條:『「傳」當作「傅」, 傅與賦古字通. 使爲《離騷傳》者, 使約其大旨而爲之賦也. 《漢紀·孝武紀》云:「上使安作《離騷賦》, 且受詔, 食時畢.」高誘《淮南鴻烈解敘》云:「詔使爲《離騷賦》, 自且受詔, 日朝食已.」此皆本于《漢書》. 《太平御覽》皇親部十六引此作《離騷賦》, 是所見本與師古不同.』」

범문란 주:「《漢書·淮南王傳》:『회남왕 劉安이 조정에 들어가 작품을 바쳤는데, 《내편》이 새로웠다. 이에 무제는 이를 아끼어 신비스럽게 여기었고, 劉安으로 하여금 《이소전》을 짓도록 하였는데, 해뜰 녘에 조칙을 받아 밥먹을 때 바치었다.』 이에 대하여 顏師古가 주를 달며 이르기를:『傳은 해설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 예로 《毛詩傳》이 있다.』王念孫의 《讀書雜誌·漢書離騷傳》條에:『傳은 마땅히 「傅(부)」가 되어야 한다. 傅와 賦는 古字가 통한다. 《이소부》를 짓게 하였다 하는 것은, 그 대체적인 뜻을 간단히 하여 賦로 짓는 것이다. 《한기·효무기》에 이르기를:「황제(무제)께서 유안을 시켜 《이소부》를 짓게 하였는데, (유안은) 해뜰녘에 조칙을 받아, 밥 먹을 때에 끝마쳤다.」라고 하였다. 고유의 《회남홍열해서》에 이르기를:「조칙을 내려 《이소부》를 짓도록 하였는데, (유안은) 해뜰 녘에 조칙을 받아, 해가 떠서 아침밥 먹을 때에 끝마쳤다.」라고 하였다. 이 모든 내용은 《한서》에 바탕하고 있다. 《태평어람》 황친부 16에 이를 인용하여 《이소부》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이는 판본은 안사고가 본 것과 다르다.』」

《校證》在《神思》篇「淮南崇朝而賦騷」句下云:「今案《辨騷》篇作『昔武帝愛才, 淮南作傳』, 則彥和已兩歧其說. 尋《漢紀·武帝紀》云:『上使安作《離騷賦》,」

且受詔, 日食時畢。」《御覽》一五〇引《漢書》亦作『使爲《離騷賦》』。蓋此事自來兩傳, 故彥和兼用也。」楊樹達《漢書管窺》以爲當作「傳」, 傳「記述大意」, 「賦」則「傳」之譌字。又其專文《離騷傳與離騷賦》詳論「傳」在西漢是指「通論雜說式」的傳, 東漢方指「訓故式」的傳。武帝、劉安皆西漢人, 故知所作《離騷傳》只是「泛論大意的文字」, 不是訓故, 所以能半日而畢。

《교증》은, 《신사》편의 「회남왕은 아침이 끝나기 전에 《이소》부를 지었고, 의 구절 아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생각컨대, 《변소》편에는 『옛날 무제는 인재를 아끼었고, 회남왕은 전을 지었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유희이 그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변소》과 《신사》편에서 둘로 나누어 표현한 것이다. 《한기·무제기》를 살펴보면, 『황제(무제)께서 유안을 시켜 《이소부》를 짓게 하였는데, (유안은) 해뜰 녘에 조칙을 받아, 해가 떠서 밥을 먹을 때에 마쳤다』는 내용이 있다. 《태평어람》 150에 《한서》를 인용하여 또한 『《이소부》를 짓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은 이 《한서》와 《한기》의 두 전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유희이 이를 겸용한 것이다.」 양수달은 《한서관규》에서 마땅히 (賦가 아니라) 「傳」이어야 하는데, 「대체적인 뜻을 기술하여, 전하는 것으로, 「부」는 「진」의 바뀐 글자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그는 논문 《이소전과 이소부》에서 「傳」은 서한시기에는 「잡설을 두루 말하는 방식」의 傳을 가리키며, 동한시기에는 「훈고식」의 전을 가리킨다고 주장하였다. 무제와 유안은 모두 서안 사람이므로 지었다고 하는 《이소전》은 「대체적인 내용을 넓게 논급한 글」일뿐, 훈고가 아니기 때문에 만나질 만에 마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홍윤기 번역 주:崇은 마치다의 뜻. 《신사》편 참조요망.

《校注》:「章炳麟《國故論衡·明解故》上:『淮南爲《離騷傳》, 其實序也, 太史依之以傳屈原.』」《校注》:「章炳麟《國故論衡·明解故》上:『회남왕이 《이소전》을 지었다 함은 사실 序로, 사마천은 이에 의거하여 굴원전을 지은 것이다.』」

홍윤기 번역 주:劉安(기원전 180-123년)은 한고조 유방의 손자이며, 한 무제 劉徹의 숙부이다. 유안의 아버지 厲王 劉長이 죽은 뒤에, 한 문제 劉恒은 劉安을 阜陵侯로 봉하였고, 8년 뒤에, 淮南王으로 봉하였다. 도가와 음양가적 경향이 짙은 《회남자》를 지어 무제의 아낌을 받았다. 무제와 회남자가 《이소》에 관심을

가진 것은 아마도 이들이 신비주의에 빠졌던 것과 관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소》의 신화적인 내용이 이들 신비주의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 같다. 유안은 나중에 반역을 시도하다 실패하여 자살한다. 劉安이 지었다고 하는 《이소전》은 엄가군의 《全漢文》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수서·경적지》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아주 오래 전에 사라졌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번역에서 따옴표를 붙일 수 있는 것은 바로 반고의 《이소서》에 이 글이 재인용되어 원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二〕「誹, 元刻本作『諛』. 《校證》:『『誹』原作『諛』, 梅據許改. 按唐寫本正作『誹』.』 橋川時雄:『《楚辭》芙蓉館, 汲古閣本作『誹』.』

「誹(비: 헐뜯다)」자는, 元刻本에는 「諛(방: 헐뜯다)」자로 되어 있다. 《校證》: 「『誹』는 원래 『諛』되어 있으나, 매씨본은 허씨본에 근거하여 바꾼 것이다. 唐寫本에 근거하면 올바르게도 『誹』자로 되어 있다.」 橋川時雄: 「《楚辭》의 芙蓉館, 汲古閣本에는 『誹』자로 되어 있다.」

《詩大序》: 「《關雎》樂得淑女以配君子, 憂在進賢, 不淫其色, 哀窈窕, 思賢才, 而無傷善之心

-138-

焉, 是《關雎》之義也.

《詩大序》: 「《시경》의 《관저》편은 숙녀를 얻어 군자에 짝함을 즐거워하면서, 현명한 인재를 등용함을 걱정하며, 여색에 빠지지 아니하며, 요조숙녀를 서글퍼하고 현명한 인재를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좋은 점을 손상시키는 마음이 없으니, 이것이 《관저》의 의의이다.」

〔三〕曹學佺批: 「《詩》亡之後, 屈平直接其緒, 故彥和正緯以辨騷也. 此非劉子之言也, 《國風》《小雅》, 《離騷》兼之, 漢人已言之矣.

曹學佺이 다음과 같이 비평하였다: 「《시경》의 시가 끊긴 이후, 굴원이 직접 그 실마리를 이어받았다. 따라서 유희는 옳고 그른 것으로 《이소》를 분석한 것이다. 이것은 유희(홍윤기 번역 주: 여기에서는 劉子가 유희를 가리키는 호칭으로 쓰였지만, 원래 유자는 유희가 아니다.)이 (처음으로 한) 말이 아니다. (《시경》의)《국풍》

《소아》를 《이소》가 둘 다 갖추었다는 말은 漢代 사람들이 이미 언급한 적이 있다.]

范注:「唐寫本『可謂』下無『兼之』二字, 誤。」

범문란 주:「唐寫本에는 『可謂』아래에 『兼之』 이 두 글자가 없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史記·屈原列傳》:「《國風》好色而不淫, 《小雅》怨誹而不亂, 若《離騷》者, 可謂兼之矣. 上稱帝嚳, 下道齊桓, 中述湯武, 以刺世事. 明道德之廣崇, 治亂之條貫, 靡不畢見. 其文約, 其辭微, 其志潔, 其行廉, 其稱文小而其指極大, 舉類邇而見義遠. 其志潔, 故其稱物芳; 其行廉, 故死而不容自疎. 濯淖汙泥之中, 蟬蛻於濁穢, 以浮游塵埃之外, 不獲世之滋垢, 皜然泥而不滓者也. 推此志也, 雖與日月爭光可也。」

《史記·屈原列傳》:「《국풍》은 이성을 성적으로 좋아하였으나 음란하지 않으며, 《소아》는 원망하고 비난하였지만 반란을 일으키는 내용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소》는 이 둘을 겸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위로는 제국을 말하고, 아래로는 제나라 환공을 말하고, 가운데로는 탕왕과 무왕을 말함으로써, 세상일을 풍자하고 있다. 도덕의 드넓음과 송고함, 난세를 바로 잡는 방법 등을 밝히고 있으니 모두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 그 문장은 간략하고 그 표현은 은근하고 그 뜻은 깨끗하며 그 행실은 청렴하니, 그 인용되어진 단어들은 작은 것들이지만 그 뜻은 광대하며, 들고 있는 部類는 가깝지만 그 드러나는 뜻은 심원하다. 그 뜻은 깨끗하여 그 인용되어진 물건은 향기롭고, 그 행실은 청렴하여 죽어서도 스스로 소홀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더러운 진흙탕 물 속에 빠져있었으나, 흐리고 더러운 곳을 허물 벗듯이 빠져나와 티끌과 먼지로 뒤덮인 세상 밖을 떠다니듯 거닐었으니, 세상의 더러운 때가 묻지 아니하였으며, 그 희고 깨끗함은 진흙탕에 빠트려도 찌꺼기가 묻지 않았다. 그의 뜻을 미루어 보면, 비록 해와 달에 견줄지라도 그 빛을 다룰 만하다.」

班固《離騷序》:「昔在孝武, 博覽古文. 淮南王安敘《離騷傳》, 以『《國風》好色而不淫, 《小雅》怨誹而不亂, 若《離騷》者, 可謂兼之. 蟬蛻濁穢之中, 浮游塵埃之外, 皜然泥而不滓. 推此志, 雖與日月爭光可也.』斯論似過其真.」

班固《離騷序》:「옛날 효 무제 때에 고문을 널리 살펴보았다. 회남왕 류안은 《離騷傳》을 짓고서, 『《국풍》은 이성을 성적으로 좋아하면서도 지나치지

않고, 《소아》는 원망하고 비난하면서도 법도를 잃지 않았다. 그런데 《이소》는 이 두 가지 장점을 두루 갖추었다고 일컬을 만 하다. 더럽고 흐린 세상 속을 허물 벗듯이 빠져나왔고, 먼지와 티끌로 가득 찬 세상의 바깥을 떠다니듯 거닐었다. 그 희고 깨끗함은 물들이려고 해도 물들여지지 않아서, 해와 달에 견줄지라도 그 빛을 다룰 만 하다.』라고 하였다. (유안의) 이 말은 진실을 벗어난 것 같다.」

《文論講疏》:「按謂《離騷》兼之, 恐不盡然, 因《離騷》雖有《小雅》之怨誹, 而不似《國風》之好色, 美人香草, 皆是比喻之詞, 屈原處境如此, 安得復爲色欲所驅, 而迫戀美人乎?」

《文論講疏》:「생각건대 (유안은) 《이소》가 이 두 가지를 겸비하였다고 말 하였으나,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소》에는 비록 《소아》의 원망하는 말과 비방하는 말이 있으나 《국풍》의 이성을 성적으로 좋아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 미인이나 향초는 모두 비유의 말로서, 굴원이 처한 경우가 이와 같은데, 어찌 다시 색욕을 추구하는 바가 있을 것이며 미인을 좇아 사모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斟詮》:「案《離騷》好色, 如稱宓妃, 有娥, 二姚之類, 皆比喻, 非實事. 怨誹, 如云『九死未悔, 顛頤何傷』, 亦怨而不亂也.」

《斟詮》:「생각건대 《이소》가 여색을 좋아하였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복비·유유·두 요씨 공주 등을 일컫는 것으로, 이들 모두는 비유로서 사실이 아니다. 원망하고 비방하였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아홉 번 죽는 것도 후회하지 않는데, 얼굴이 누렇게 뜬다하여 어찌 슬퍼하리.』와 같은 구절들이다. 이 또한 원망하지만 법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홍윤기 번역 주: 顛頤(황함 顛(황: 부황들다) 頤(함: 부황들어 누렇게 뜨다.) 왕일의 주는 다음과 같다: 顛頤, 不飽貌. 言已飲食清潔, 誠欲使我形貌信而美好, 中心簡練, 而合於道要, 雖長顛頤, 飢而不飽, 亦何所傷病也. 何者? 衆人苟欲飽於財利, 已獨欲飽於仁義也. 황함은 주린 모양이다. 자신이 먹고 마시는 것이 깨끗해서, 나의 모습을 믿음직스럽고 아름답게 할 수 있으니, 마음은 간단명료하여 도의 요체에 들어맞으니, 비록 그 모습이 주려서 배부르지 않더라도 어찌 상심하고 아파하겠는가? 왜인가? 보통 사람들은 구차하게 재물과 이익에 배부르고자하지만 자신만은 인의에 배부르고자 하기 때문이다.)

〔四〕《史記·屈原列傳》正義:「蛻, 去皮也。」《淮南子·精神訓》:「蟬蛻蛇解, 游於太清。」蟬蛻鼓比喻解脫。

《史記·屈原列傳》正義:「蛻(태)는 껍질에서 벗어나는 것이다。」《淮南子·精神訓》:「매미가 허물을 벗고 뱀이 껍질을 벗듯이 커다란 맑음의 세계에서 노닌다。」매미가 허물을 벗는다는 것은 해탈을 비유하는 것이다.

〔五〕「涅, 染黑. 《論語·陽貨》:「不白白乎? 涅而不緇。」孔注:「涅可以染皂. 言至白者, 染之於涅而

-139-

不黑; 喻君子雖在濁亂, 濁亂不能汚。」「皜然, 潔白貌。」「皜然, 潔白貌. 橋川時雄:「唐寫欄下記云:『緇, 黑色.』《說文》:『涅, 黑土在水中者也.』故唐寫欄下記云:『涅, 水中黑.』」

「涅(넬/날)」은 물들여 검게 하는 것이다. 《論語·陽貨》:「희다고 하지 않느냐? 검게 물들이려 하나 물들지 않는다。」孔注:「검은흙을 사용하면 검게 물들일 수 있다. 너무나 하얀 것은 이를 검은 흙에 두어 물들이려 해도 검게 물들여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군자가 비록 혼탁한 난세에 있더라도 이러한 혼탁한 난세가 군자를 더럽힐 수 없음을 비유한 것이다.」「皜然(작연)」은 깨끗하고 흰 모습이다. 橋川時雄:「당사본의 칸 밑에는『緇(차: 검은 비단)는 검은 색이다.』라고 쓰고 있다. 《설문해자》:『涅(넬/날)은 물 속에 있는 검은 흙이다.』 따라서 당사본 칸 밑에는『넬은 물 속의 검은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홍윤기 번역 주: 닳(조:검은 색.)

05-03 班固以為露才揚己〔一〕, 忿懣沉江〔二〕; 羿澆二姚〔三〕, 與《左氏》不合〔四〕; 崑崙懸圃〔五〕, 非經義所載; 然其文辭麗雅〔六〕, 爲詞賦之宗〔七〕, 雖非明哲〔八〕, 可謂妙才.

홍윤기 번역: 한편, 반고는 《이소서》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굴원은 재주를 드러내고 자신을 뽐내다가, 분하고 원통하여 강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 그리고 예·요·두 명의 요씨 공주 등에 관한 내용은 《좌전》과 다르며, 곤륜산과

현포에 대한 내용도 (유가) 경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 문사가 화려하면서도 진아하여 詞賦의 祖宗이 되었으니, 문인이 비록 명철한 현인은 아닐지라도 기묘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라고 부를 만하다.”

[一] 班固《離騷序》:「及至 桀、湯、少康、二姚、有娥佚女, 皆各以所識, 有所增損, 然猶未得其正也. 故博采經書傳記本文, 以爲之解. 且君子道窮, 命矣. …… 故《大雅》曰:『既明且哲, 以保其身.』斯爲貴矣. 今若屈原, 露才揚己, 競乎危國群小之間, 以離讒賊, 然責數懷王, 怨惡椒蘭, 愁神苦思, 強非其人, 忿懣不容, 沈江而死, 亦貶絜狂狷景行之士. 多稱昆侖(范注:昆侖下疑脫懸圃二字.)冥婚宓妃, 虛無之語, 皆非法度之政, 經義所載, 謂之『兼《詩·風·雅》而與日月爭光』, 過矣. 然其文弘博麗雅, 爲辭賦宗, 後世莫不慕潛其英華, 則象其從容. 自宋玉、唐勒、景差之徒, 漢興, 枚乘、司馬相如、劉向、揚雄, 騁極文辭, 好而悲之, 自謂不能及也. 雖非明智之器, 可謂妙才者也。」(홍윤기 번역 주·佚女(일녀): 미녀. 佚=吹(질: 해 가올다/뛰어나다) 責數(책수): 꾸짖어 따지다. 貶絜(편절: 絜(혈: 헤아리다)) 자신의 고결함을 깎아내리다. 絜=潔. 狂狷(광견: 狷(견:성급하다)). 景行: 고상한 덕행. 冥婚(명혼: 冥(명: 어둡다) 婚(혼: 혼인하다) 이미 죽은 남녀를 결혼시키는 것. 從容: 몸가짐.)

班固《離騷序》:「예·요·소강과 두 명의 요씨 공주·유용 등의 빼어난 여인들에 대해서는 모두 각각 알려진 바가 보태어지고 빠진 것이 있어서 그 올바름을 얻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경서와 전기의 본문 등을 널리 취하여 그 내용을 풀이했다. 또한 군자의 길은 窮僻한 것이니, 이것은 운명인 것이다. …… 따라서 《대아》에 『명석하고 명철함으로써, 그 몸을 보전할지니』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말은 귀중한 것이다. 오늘날 예를 들어 굴원은 재주를 드러내고 자신을 뽐내어,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여러 소인배들 사이에서 다투니, 혈뜰음과 해를 당하여, 회왕에게 꾸짖어 따지고, 초란을 원망하며, 걱정근심하면서 그들을 억지로 틀리다하고 세상에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을 원통해하고 분해하다가 강물에 몸을 던져 죽으니, 그는 또한 자신의 고결함을 깎아 내리고 성급하고 고상한 덕행을 추구한 인물이다. 여러 번 곤륜과 현포를 말하고, 이미 죽은 북비와의 결혼을 생각하니, 이와 같은 허무한 말들은 모두 올바른 법도에 어긋나는 것들이며 경전에 실려 있는 내용이 아니다. 이러한 내용을 일러 『《시경》의 풍과 아를 견비하여 해와 달

과 더불어 빛을 다툼만하다』고 한 것은 지나친 말이다. 그러나 그 문장은 드넓고 아름다우면서도 전아하여, 辭賦의 祖宗이 될만하여, 후세의 작품들 가운데에는 그 꽃다운 화려함을 헤아리지 않은 작품이 없어서, 그 모습을 흉내내었다. 송옥·당륙·경차의 무리에서부터, 한나라가 흥성한 뒤, 매승·사마상여·유향·양웅 등은 문사를 지극히 치달았다. 이들은 초사를 좋아하였고 굴원의 처지를 슬퍼하면서, 자신들은 굴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굴원은 비록 밝은 지혜를 가진 인물은 아니지만 기묘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라고 일컬을 만하다.

劉熙載《藝概》卷三《賦概》：「班固以屈原爲露才揚己，意本揚雄《反離騷》，所謂『知衆媿之嫉妬兮，何必揚纍之蛾眉』是也。然此論殊損志士之氣。」

劉熙載《藝概》卷三《賦概》：「반고는 굴원이 재주를 드러내고 자신을 뽐내었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런 뜻은 양웅의 《반이소》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여러 미인들의 질투를 알면서도 어이하여 굵은 눈썹을 치켜 뜨나』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굴원의 애국)지사적 성격을 손상시킨다.」(홍윤기 번역 주 揚雄은 《反離騷》에서, 때를 만나고 못 만나는 것은 운명인데, 그렇게 자살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고 하면서 그의 죽음에 애도를 표시한다. 『』안의 내용은 《반이소》의 내용으로 굴원의 처세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다.)

〔二〕「懟」, 怨恨.

「懟(대)」는 원망하는 것이다.

-140-

〔三〕《訓故》：「《離騷》：『羿淫遊以佚田兮，又好射夫封狐。固亂流其鮮終兮，澁又貪夫厥家。澁身被朋鬪壟兮，縱欲而不忍，日康娛而自忘兮，厥首用夫顛隕。』又云：『及少康之未家兮，留有虞之二姚。』梅注：「羿，有窮君之號。澁，寒澁子。二姚，虞君思之女，以妻夏后少康。」《離騷》王逸注：「澁，寒澁，羿相也。……因夏衰亂，代之爲政，娛樂田獵，不恤民事，信任寒澁，使爲國相。」又：「澁，寒澁子也。……澁殺羿而取羿妻，生澁，強梁多力，縱放其情，不忍其慾，以殺夏后相也。」又：「有虞，國名，姚姓，舜後也。昔寒澁使澁殺夏后相，少康逃奔有虞，虞因妻以二女。」(홍윤기 번역 주: 佚田: 佚(일: 방종하다.) 田=畋(전: 사냥하다) 被服: 옷처럼 걸치다. 疆隄(강어: 圍(어: 막다)) 힘

이 세다. 康(강: 편안하다/즐기다) 強梁(강량: 梁(량: 들보)) 힘세다.)

《訓故》:「《離騷》:『예는 어지러이 노니며 마구 사냥을 다니다가, 커다란 여우를 쏘아 맞혔다네. 음란한 무리는 좋은 마침이 정말로 드물더니, 한착은 또한 (예를 죽이고) 그 아내를 탐하였지. (한착의 아들) 요는 센 힘을 지니고 있었는데, 욕심을 좇아 참지 못하였다네. 매일 편히 놀면서 자신을 잊더니, 그 머리가 떨어지고 말았지』 또:『소강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유우국의 두 공주 요씨를 그의 집에 남겨놓았네』 梅注:「예는 유공나라 임금의 호이다. 요는 한착의 아들이다. 이요는 우리나라 임금사의 딸로서 하나라 왕 소강의 처가 되었다.」《離騷》王逸 주:「착은 한착이다. 예의 재상이다. …… 하나라가 쇠퇴하고 혼란스러워지자(홍윤기 번역 보충 하나라 임금 태강을 퇴위시키고) 그를 대신하여 정치를 하였는데, 사냥을 즐겨 백성의 일을 붙잡지 여기지 않았고, 한착을 신임하여 그를 나라의 재상으로 부리었다.」 또:「요는 한착의 아들이다. …… 한착이 예를 죽이고 예의 처를 취하여, 요를 낳았는데, 요는 힘이 세었고 그 자신의 감정을 제멋대로 좇으며 그 욕심을 참지 못하여 하나라 임금 상을 죽이였다.」 또:「有虞는 나라이름이다. 姚는 姓이다. 舜임금의 후손이다. 옛날 한착은 요를 시켜서 하나라 임금 상을 죽이게 하였는데, (그의 아들) 소강은 유우국으로 도망쳤고, 우는 (소강에게 자신의) 두 딸을 처로 삼게 했다.」

[四] 《札記》:「案班孟堅《序》譏淮南王安作《傳》, 說羿、澆、少康、二姚、有娥佚女, 皆各以所識, 有所增損, 非譏屈子用事與《左氏》不合. 彦和此語蓋有誤.」

《札記》:「생각건대 반고의 《이소서》는 회남왕 유안이 지은 《이소전》에서 말하는 예·요·소강과 두 요씨 공주·유융 등의 미녀 등에 대한 이야기 모두가 각각 알려진 바에 보태고 빠진 부분이 있음을 비난하는 것이지, 굴원의 이야기 전개가 《춘추 좌씨전》과 맞지 않는다는 비난한 것이 아니다. 유희의 이 말에는 잘못이 있다.」

洪興祖《楚辭補注》卷一附錄:「《離騷》用羿澆等事, 正與《左氏》合. 孟堅所云, 謂劉安說耳.」按《左傳》哀公元年:「昔有過澆, ……滅夏后相, 后緝方娠, 逃出自竇, 歸于有仍, 生少康焉. 爲仍牧正, 碞澆能戒之, 澆使椒求之, 逃奔有虞, 爲之庖正, 以除其害. 虞思于是妻之以二姚.」(홍윤기 번역 주: 碞(기: 해치다)

洪興祖《楚辭補注》卷一附錄:「《이소》는 예와 요 등에 관한 일을 서술하고 있는데, 《춘추좌씨전》의 내용과 딱 들어맞는다. 반고가 말한 것은 유안의 말에

대해서이다.」《左傳》哀公元年の 내용에 따르면:「옛날 유과나라의 요가 …… 하나라의 왕 상을 멸망시켰는데, 그때에 상의 왕비 후민은 임신을 하고 있어, 구멍으로 도망쳐서 (친정의 나라인) 유잉으로 돌아가 거기에서 소강을 나았다. 소강은 후에 유잉의 목정이 되자 요는 그가 자신을 해칠까 그를 경계하였다. 요가 초를 시켜 소강을 잡으려 하자 (소강은) 유우 나라로 도망을 쳐서, 요리사로 변장하여 해를 피했다. 그 뒤, 우나라 임금 사는 소강에게 두 딸 요를 아내로 삼게 하였다.」

羿, 夏代部落有窮氏의 君長. 當啓의 兒子太康時代, 因夏亂, 奪取政權. 浞, 卽寒浞, 羿所親信的國相. 寒浞霸占了羿妻以後, 生子過澆, 武勇多力, 殺死夏后相, 後來他又爲相的兒子少康所殺. 二姚, 姚姓二女, 夏少康妃.

에는 하대의 부락 유공씨의 임금이다. 계의 아들 태강의 시대에, 하나라가 혼란스러워지자 정권을 빼앗았다. 착은 바로 한착이다. 예가 신임하는 나라의 재상이다. 한착은 예의 처를 강제로 취한 뒤에 아들 과요를 나았는데, 그는 힘이 셋고, 하나라 임금 상을 죽였다. 후에 그는 또한 상의 아들 소강에게 죽었다. 두 요는 요씨 성의 두 딸로서, 하나라 소강의 왕비이다.

《注訂》:「此據班固《離騷序》有『及至羿、澆、少康, …… 然猶未得其正也』而言. 但屈氏之論羿澆與《左傳》並無不合, 見《困學紀聞》引洪慶善說. 按《左傳》襄公四年, 晉悼公納魏絳說和

-141-

戎, 絳引夏訓云, 述后羿, 寒浞、二姚事, 與《離騷》皆同, 豈班氏之說, 或另有所據乎?」

《注訂》:「이 구절은 반고의 《이소서》에 나오는 『예·요·소강에 대해, …… 그러나 오히려 그 바름을 얻지 못했다』의 구절에서 따온 것이다. 그러나 굴원이 예와 요를 언급한 것은 《좌전》의 내용과 결코 합치되지 않는 것이 아니니, 《곤학기문》에 인용된 홍경선의 설을 보라. 생각컨대 《좌전》 양공 4년, 진나라 도공은 용과 화약해야 한다는 위강의 말을 받아들인다. 위강은 하나라의 혼을 인용하여 후에 한착·두 요씨 공주의 일을 말하였는데, 《이소》의 내용과 모두 같으니, 어찌 반고의 말에 그밖에 다른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五] 《訓故》:『《離騷》:『遭吾道夫崑崙兮, 路脩遠以周流。』又:『朝發軔于蒼梧兮, 夕余至乎懸圃。』王逸注:『懸圃, 神山也, 在崑崙之上。』梅注:『《水經》云:『崑崙墟在西北, 去嵩高五萬里, 地之中也, 其高萬一千里, 河水出其東北陬。』酈道元注云:『崑崙之山三級, 下曰樊桐, 一名板松; 二曰玄圃, 一名閭風, 上曰增城, 一名天庭, 是謂太帝之居。《山海經》曰:西海之南, 流沙之濱, 赤水之後, 黑水之前, 有大山, 名崑崙。』』

《訓故》:『《離騷》:『내 길을 돌아 곤륜산으로 가리, 길은 멀어 두루 돌아다니네。』 또:『아침에 남쪽 창오에서 출발하여, 저녁에는 나 현포에 이르네。』王逸注:『현포는 신령스런 산으로 곤륜의 위에 있다。』梅注:『《水經》에:『곤륜의 큰 언덕은 서북쪽에 있는데, 송고산 까지의 거리는 오만리이며, 땅의 가운데이다. 그 높이는 만 일천리이며, 강물은 그 동북쪽의 모퉁이에서 흘러나온다。』酈道元の 주에:『곤륜의 산에는 삼등급이 있다. 하급을 변동이라고 하며, 판송이라고도 한다. 이등급을 현포라고 하며, 양풍이라고도 한다. 상등급을 증성이라고 하며, 천정이라고도 한다. 이곳이 바로 태제가 사는 곳이라고 일컬어진다. 《산해경》에 이르기를 서해의 남쪽, 유사 가장자리, 적수의 뒤, 흑수의 앞에 커다란 산이 있는데 곤륜이라고 한다。』』

黃注:『《天問》:『崑崙懸圃, 其尻安在?』注:『崑崙, 山名, 其巔曰懸圃。』朱熹注:『崑崙, 據《水經》, 在西域, ……河水所出, 非妄言也, 但懸圃增城, 高廣之度, 諸怪妄說, 不可信耳。』黃校:『懸, 一作玄。』《校注》:『按唐寫本……作『玄』, ……『玄』與『懸』古字通。』(홍윤기 번역 주:尻(고: 자리잡다) '尻'자로도 되어 있다.)

黃注:『《天問》:『곤륜현포는 그 어디에 있나?』注:『崑崙은 산 이름이고, 그 꼭대기를 현포라고 한다。』朱熹注:『곤륜은 《수경주》에 따르면, 서역에 있으며, …… 황하의 물이 여기에서 흘러나온다고 하는데, 허튼 소리는 아니다. 그러나 현포와 증성에 대한 높이와 넓이는 대부분이 괴이한 망령된 소리로 믿을 만한 바가 되지 못한다。』黃校:『懸자는 어떤 판본에는 '玄'자로 되어있다。』《校注》:『당사본에 따르면, ……『玄』자로 되어 있는데, ……『玄』자와 『懸』자는 옛 글자가 통한다。』』

姚範《援鶉堂筆記》卷四十《文心雕龍·辨騷》:『按班氏《離騷經章句敘》云:『說五子以失家巷, 謂伍子胥, 及至羿、澆、少康、有娥佚女, 皆各以所識有所增

損，然猶未得其正也。』此並言淮南說《騷》之誤，彥和遂云與下崑崙，處妃同爲譏屈之詞，失其指矣。」

姚範《援鶉堂筆記》卷四十《文心雕龍·辨騷》：「반고의 《離騷經章句敘》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또, (유안의 《이소전》에는)“(《이소》의 ‘五子以失家巷’에서의 ‘오자’는 오자서를 일컫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예·요·소강과 두 명의 요씨공주·유용 등의 빼어난 여인들에 대해서는 모두 각각 알려진 바가 보태어 지고 빠진 것이 있어서 그 올바름을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회남왕 유안이 《이소》에 대하여 잘못 말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런데, 유험이 아래의 곤륜 북비에 대한 이야기와 굴원을 비판하는 글을 동일시하는 것은 그 지적하는 바가 틀렸다.」

[六] 橋川時雄：「『然其』，唐寫及各本同，〈楚辭〉夫荅館，汲古閣本『其』作『而』，時按從班固序作『其』是。』又：「唐寫無『辭』字，各本及〈楚辭〉夫荅館本有『辭』。『其文辭麗雅』，本班固序，無『辭』字，似是，序作『雅麗』。」

橋川時雄：「『然其』에 대하여, 唐寫 및 각 본은 같은데, 《楚辭》 부용관, 급고각본에는 『其』자가 『而』자로 되어있다. 고천시웅 본인이 생각컨대, 반고의 서를 따라서 『其』자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또：「당사본에는 『辭』자가 없고, 각 본 및 《楚辭》 부용관본에는 『辭』자가 있다. 『其文辭麗雅』에 대해서는, 반고의 서에 근거하면 『辭』자가 없는데, 옳은 것 같다. 序에는 『雅麗』라고 되어있다.」

[七] 「宗」，祖，指開創者.

「宗」은 할아버지 즉 창시자를 가리킨다.

-142-

[八] 《校注》：「『非明哲』，謂其投汨羅而死，〈詩·大雅·烝民〉：『既明且哲，以保其身。』」「哲」，智也

《校注》：「『명철한 현인은 아니다』라는 것은 먹리수에 몸을 던져 죽을 것을 일컫는다. 〈詩·大雅·烝民〉：『이미 밝고 지혜로워서 그 몸을 보존한다.』라는 노래가 있다.」「哲」은 지혜로운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